

“도심 활성화 단계적 정책 마련을”

영남대 김타열 교수, 대구·경북연구원 워크숍서 제기

도심을 쇠퇴하도록 시장 기능에 맞겨 들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남대 도시공학과 김타열 교수는 7일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열린 ‘대구시 도심 활성화 정책 워크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교수는 “도심부는 도시에서 주요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리가 대세다.”면서 “중심시가지의 활성화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단이고 경제성과 정체성 및 통합성의 핵심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 가

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도심부 내의 기반시설이 불량하다는 것이다.

영세 필지로 분할돼 있어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특히 가로망 정비가 불량해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필지의 비율이 높다. 김교수는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나라 대부분 도시에서 나타나는 도심부의 대표적인 쇠퇴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제1단계의 사업은 주거환경정비사업과 주상복합아파트사업을 통한 주거기능의 유지와 전통성과 문화적 구

심점을 높일 수 있는 문화재의 지정과 다양한 이벤트사업이 포함된다.

제2단계사업은 보행환경 개선 등 시가지 기반여건의 개선과 전문특화상가 육성 등 상업기능의 활성화가 중심이다.

3단계 전략사업은 도심재개발 및 수복재개발 등의 시가지 기반여건 개선과 읍성 등 역사문화환경의 조성 등을 설정했다.

4단계 전략은 중기적 관점에서 주거 지원기능의 확충이고 마지막 5단계는 도심업무기능의 강화와 도심상업의 종합적 정비이다.

박무환기자

pmang@kyongbuk.co.kr